



한국 성인 알레르기 비염 유병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양세정, 이현숙

국립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

INTRODUCTION

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. 이로 인해 호흡기계 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이 증가하였다. 호흡기계 질환 중 알레르기 비염은 최근 수 십 년 간 극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으로 간주 되고 있다. 또한, 알레르기 비염은 수면장애와 잦은 콧물로 인해 삶의 질 (quality of life)의 저하를 가지고 오며 이는 신체적,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진다.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알레르기 비염 유병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알레르기 비염 유병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MATERIALS AND METHODS

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. 연구대상은 2018년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 중 알레르기 비염 유병 군 88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, 교차분석, 카이제곱 검정, 로지스틱 회귀분석(Logistic Regression analysis) 등을 실시 한다.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%로 설정하였다.

RESULTS

연구대상자는 알레르기 비염 881명으로 각 특성별 변수와 스트레스 인지 여부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, 만나이, 교육수준, 불안/우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. 또한, 유병군의 각 특성별 변수와 우울감 여부 사이의 관련성에서는 교육수준, 건강보험의 종류, 일상생활 속 운동 제한 여부, 일상활동 제한 여부, 통증/불편 여부, 불안/우울 여부, 주관적 건강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. 유병군의 각 특성별 변수와 자살생각 여부와의 관련성에서는 성별, 만나이, 교육수준, 건강보험의 종류, 주택유형, 일상생활 속 운동 제한 여부, 자기관리 제한 여부, 일상활동 제한 여부, 통증/불편 여부, 불안/우울 여부, 주관적 건강인지, 흡연여부, 1주일간의 걷기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. 결과적으로, 교육수준, 불안/우울 여부가 정신건강에 공통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.

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,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, 불안/우울로 나타났고 우울감은 결혼여부, 불안/우울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은 성별 연령, 불안/우울, 주관적 건강인지, 평생 흡연여부, 일주일간 걷기 여부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. 결과적으로 스트레스, 우울감, 자살생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불안/우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사되었다.

<표 1>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	OR	P	95% CI
연령(19~29) 40~49	0.278	0.021	0.093~ 0.824
50~59	0.327	0.047	0.108~ 0.985
운동능력(지장 없음)	0.606	0.276	0.246~ 1.492
자기관리(지장 없음)	0.204	0.173	0.021~ 2.009
일상활동(지장 없음)	1.549	0.482	0.457~ 5.253
통증/불편(없음)	1.206	0.523	0.678~ 2.145
불안/우울(없음)	0.069	0.010	0.009~ 0.524
주관적 건강인지(좋음)	0.633	0.186	0.321~ 1.246
평생 흡연여부 (있음)	1.265	0.422	0.713~ 2.246
평생 음주경험(있음)	1.125	0.778	0.498~ 2.539
일주일간 걷기 여부(없음)	0.778	0.438	0.412~ 1.468

<표 2>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	OR	P	95% CI
결혼여부(기혼)	0.474	0.038	0.234~ 0.961
운동능력(지장 없음)	0.784	0.541	0.359~ 1.713
자기관리(지장 없음)	2.351	0.244	0.559~ 9.895
일상활동(지장 없음)	0.692	0.400	0.293~ 1.631
통증/불편(없음)	1.026	0.925	0.604~ 1.743
불안/우울(없음)	0.129	0.000	0.076~ 0.220
주관적 건강인지(좋음)	0.676	0.135	0.404~ 1.130
평생 흡연여부 (있음)	1.268	0.380	0.746~ 2.155
평생 음주경험(있음)	1.182	0.690	0.520~ 2.685
일주일간 걷기 여부(없음)	1.363	0.306	0.753~ 2.467

<표 3>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	OR	P	95% CI
성별(남자)	0.281	0.005	0.115~ 0.686
연령(19~29) 30~39	5.981	0.016	1.399~ 25.560
40~49	3.769	0.050	1.003~ 14.168
운동능력(지장 없음)	0.820	0.704	0.294~ 2.287
자기관리(지장 없음)	0.799	0.785	0.159~ 4.024
일상활동(지장 없음)	0.587	0.299	0.215~ 1.602
통증/불편(없음)	0.549	0.132	0.252~ 1.197
불안/우울(없음)	0.243	0.000	0.111~ 0.532
주관적 건강인지(좋음)	0.340	0.003	0.166~ 0.697
평생 흡연여부 (있음)	2.167	0.049	1.002~ 4.688
평생 음주경험(있음)	1.837	0.368	0.489~ 6.905
일주일간 걷기 여부(없음)	2.741	0.016	1.203~ 6.244

DISCUSSION

알레르기성 비염은 계절성 질환으로 대상자 수집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. 하지만 유병률이 높아 기존 연구의 대다수였던 청소년의 알레르기성 질환을 넘어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. 또한, 본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정신건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안/우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며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.